

동병상련 情 나누며 외로움은 반으로

독거어르신 친구맺기 사업...교계복지관 우수평가

외로운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게 비해 조기 사망률이 14% 더 높다. 미국 시카고대 존 카치오프 교수가 6년 동안 50세 이상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적조사 결과다. 외로움이 건강에 끼치는 피해도 심각하다. 사회적 고립감은 우울증 뿐 아니라 면역력 약화, 고혈압, 심혈관질환, 치매, 노화, 스트레스 조절 기능 마비도 유발시킨다.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고독사 건수는 1,717건. 주로 노인들 사이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따져볼 때 하루 평균 4.7명의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유착 세 집단으로 나눈후 360회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독거노인의 우울증 완화와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심리치료, 상담, 건강·여가 활동, 자원봉사활동, 자조모임 조직 지원 등으로 꾸러졌다.

예산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난관은 참가자 모집이었다. 오랫동안 외로움과 소외감에 익숙해져 무기력해진 어르신들은 시장가는 것 외에는 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과의 만남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수차례 노력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 독거어르신 친구맺기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고무마케기 등 야외활동을 함께 하며 서로 친목을 다져나갔다.

여수·일산·영도구 등 세곳 표창 고독사·우울예방 관계망회복 초점 자살·우울증 검사서 효과 높여져

신들을 찾아가 설득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르신들의 변화는 곧 나타났다.

영도구노인복지관의 구주영 팀장은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분들이셨는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자살생각, 우울척도 검사에서 9개월 전보다 점수가 감소했다."

복지관 출석 횟수가 늘고 동병상련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또래 어르신끼리 자주 만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회복

되어 간 것이다. 덕분에 무기력하고 예민했던 어르신들도 긍정적으로 변해갔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김 모 어르신 역시 처음에는 복지관에 나오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던 경우다. 젊었을 때 남편의 가정폭력을 겪은 후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점차 사회와 단절되어 갔던 것. 그러나 지금은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 덕분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기뻐한다.

다른 어르신들 역시 마찬가지다. 모임이 있는 수요일만 기다렸다는 어르신, 봉사활동을 하며 나 자신 말고 주위를 돌볼 수 있었다는 어르신 등 효과는 놀라울 정도다.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보니 세 복지

관 모두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장효연 복지사는 "생활관리사파견, 안전돌봄시스템 등 기존의 독거노인 사업보다 좀처럼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어르신들간 형성함으로써 상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은둔형 독거노인 239명, 우울증 자살고위험군 1,190명, 관계유착집단 2,105명을 전국적으로 발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금정청소년수련관 연이은 수상... 경사났네

여성가족부장관·보훈처장상 등 우수 프로그램 입성

범어사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 범어청소년동네 소속 금정청소년수련관(관장 윤희선)에 최근 경사가 잦다.

금정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여성가족부와 보훈처, 부산문화재단으로부터 연이은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이다.

구합 29일에는 지방선거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청국장-청소년 국가주권 장려하기' 프로그램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금정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 14명의 학생들이 직접 발의하고 시행한 것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청소년 정책을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직접 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안 활동을 벌였다. 지방선거기간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 독려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를 관심있게 지켜본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은 당선된 후 이들 청소년과 간담회를 가졌을 정도다.

이밖에도 RFR금정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언어순화 프로그램 "유익스토리-청소년 말하는대로(大路)"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상을, 독도사랑축제 "청소년, 독도를 외치다"는 보훈처장상을 11월과 12월에 각각 수상했다. 또 '재미난 금정예술포럼'은 부산문화재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익스토리-청소년 말하는대로'는 청소년의 언어습관 사용실태를 점검해보고 바람직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언어생활 관련 변화 그리기 등을 진행했으며 '청소년, 독도를 외치다'는 청소년들이 독도를 배우고 독도 홍보에 나서으로써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재미난 금정예술포럼'은 예술교육을 이수한 후 이를 창작활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작사와 작곡을 하고 노래를 만들어 자신만의 앨범을 만들어보는 문화예술활동이다.

배현진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중앙대에서 진행된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시상식에서 금정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아름다운동행, 11개 복지단체 9천7백만원 지원

더프라이스·조계종 포교사단 등 소외계층·국제개발 활동 독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국내외 복지증진을 위한 NGO 및 복지단체 지원사업 공모 결과, 더프라이스를 포함한 11개 단체에 총 9천7백여만원을 전달하게 됐다고 1월 9일 밝혔다.

사업공모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했다.

소외계층지원 분야에는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을 비롯한 8곳이, 탈북자 분야에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1곳이 그리고 국제개발 분야에는 더프라이스 등 2곳이 선정됐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아름다운동행의 공모사업은 현재까지 38곳의 복지단체에 약 2억5천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배려자에 대한 지원을 펼쳐왔다. 올해는 저소득가정과 탈북자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사업

과 환경보전 및 의식고취를 위한 사업,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 사업 등의 분야별로 공모를 진행했다.

우수 사업 선정은 사회복지학과 교수 2명, 현장 활동가 3명 등 총 5명의 전문가의 심사를 거쳤으며 사업계획 적합성, 타당성, 창의성, 지속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파급효과, 사회공헌이 주요 평가항목이었다.

선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외계층지원분야 :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소외계층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내 행복을 반울림', 1천만원) △금곡종합사회복지관(ADHD 아동의 목공프로그램을 통한 정서·행동 놀이 치료 우리가 만드는 '드림월드', 8백만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소통하고 성장하는 창의융합

교육체험 활동, 1천만원)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소외계층 청소년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인문학 베이커리', 1천만원) △반여종합사회복지관(남성독거어르신들의 생활자립능력향상 프로그램 '할배들의 식탁', 9백5만2천원) △사회협동조합 일하는학교(아간비행 학교박정소년을 위한 아간배움터, 1천만원) △산재청소년센터(꿈을 키워주는 '희망키움', 9백6십5만원) △진례지역아동센터(저소득층 아동의 심신 건강 성장 프로젝트, 7백만원)

탈북자지원분야 :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통일바라미 탈북 어린이 교육 지원사업, 7백만원)

국제개발분야 : △더프라이스(동티모르 아수마노 초등학교 급수 시설 지원사업, 1천만원) △위도아시아(캄보디아 짜베여이 마을 여성마을공동체 형성 프로젝트, 6백9십5만원)

배현진 기자

안양복지관, 201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노인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행된다.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양숙)에서는 올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안양시 거주 만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신체 건강한 어르신이며, 일부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예외적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자 모집기간은 1월 19~30일로 2주간 모집하며,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이내), 증명사진 1장으로 본인이 직접 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031)455-0551

배현진 기자

"이웃에서 이웃으로 전달되었으면"

생명나눔 명예전당에 천장 스님... 1년간 109명 장기기증 추천



장기기증을 109명에게 추천한 공로로 생명나눔실천본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삼문종 천장 스님(사진 왼쪽)과 일면 스님(사진 오른쪽).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월 6일 삼문종 연화호불정사 주지 천장 스님을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다.

20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천장 스님은 지난 2014년 8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이래 신도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장기기증을 홍보해 총 109명을 희망등록자로 추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명예의 전당 제도

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추천을 100명 이상 달성한 회원을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한 제도다.

천장 스님은 "우리 몸이 죽어서 흙이 되고 물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웃에서 이웃으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돼 부끄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불교삼문종은 총무원장 지민 스님을 비롯해 중회의장 지경 스님, 총무부장 성우 스님, 중회의원 정연·명산·성현·지화·천장 스님까지 명예의 전당에 총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일면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신 천장 스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배현진 기자

서울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초발심자경문에서 대방광불화엄경까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던 인명논리로 바라본 나란다식 경율론 삼장교육

- 모집인원 : 20명 (선착순)
- 교육대상 : 모든 종단의 비구, 비구니 스님을 포함한 승가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재가자 가능)
- 강사진 : 학회장 스님과 학회 소속 지도교수 특강강사
- 교육과정 :
 - 전 문 과 정 2년
 - 연 구 과 정 4년
 - 교수사과정 7년
- 개 강 : 2015년 3월 7일 개강
- 강의시간 : 주 2회 6시간 (금요일 저녁 3시간, 토요일 오전 3시간)
- 등록금 : 년 100만원

입학문의 : 서울승가대학 교학과 / 02)414-1222

사)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 13기생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에서 신라의소리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자 합니다.

아 래

- 자 격 : 식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개 강 일 : 2015년 3월 9일(음력 1월 19일 월요일) 오후 3시
- 매 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 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진영포교당)
- 과 목 : 초급반 - 예경의식(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등)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및 천도재의식. 관음시식, 사물다루는법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사물다루는 법
- 강 사 : 한파스님(학장스님께서 직접 내외전 강의하십니다.)
- 보조강사 : 수암스님(010-5488-7060)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055)343-2267~8700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 · 연구보존회